



선암사 대응전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5월 30일 조선 후기 대표적 사찰 건물의 하나인 전남 순천 대응전을 보물 제1311호로 지정했다. 선암사 대응전은 조선 순조 24년(1824)에 다시 지어진 정면 3칸, 측면 3칸짜리 건물로 처마 끝 무게를 받치는 장식부재 공포를 기둥 사이까지 배치한 다포식 기법으로 조성됐다. 공포의 배치, 새김 기법이 정교한데다 장식미가 뛰어나 전북 부안 내소사 대응전(보물 제291호)과 함께 조선 후기 절집 양식의 본보기로 꼽힌다.

봉정사 목조관음상 상세보고서 등 수록

조계종 총무원에 지난 한 해 성보 보존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비지정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고 새로 발견된 자료 가운데 공개 가치가 있는 성보문화재를 묶어 <성보 3호>를 최근 펴냈다.

조성시기를 놓고 국내 최고(最古) 논란을 일으켰던 안동 봉정사 관음 보살상에 대한 보고서 등 모두 6편의 보고서를 실었다.

특히 이번 조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가평 현동사의 불상과 불화 9점 가운데 극락전 아미타불상과 후불화 3점, 지장전 지장보살상과 지장시왕도 등 모두 7점이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 좌상과 용인 용덕사 전래 불상 3구, 수원 정원대 극락보전에 조성된 영산회상도 등도 각각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동사 극락전에 봉안된 아미타회상도와 지장시왕도, 신증도는 문화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박락이 심해 보존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형진 기자

성보박물관 數 늘었지만 質 거북걸음

빈발하는 불교문화재 도난예방을 위해 90년대 중반부터 본사급 사찰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성보박물관이 전시와 교육, 보존이라는 박물관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계에서 문을 연 성보박물관은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비롯해 모두 12곳이다. 현재 성보박물관을 건립 중인 곳은 불국사 등 11곳에 이르고 범주사 표충사 등 5곳은 자체 유물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성보박물관들은 몇몇 성공적인 경우를 빼고는 추진과정에서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미비, 전문인력 확보 등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는 계획이 없던 시설변경으로 예산을 추가투입하거나 예산부족으로 건립이 중단·연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성보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한 사찰은 실제 과정에서 습기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문제가 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또

다른 사찰도 수장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기계실로 유물 훼손이 우려돼 구조변경을 진행 중이다. 수장고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전시관만 개관해 유물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도 있다. "그 동안 도난 방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박물관 건립을 하다 보니 해당 사찰의 전문성이나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장고 없이 전시관만 관리 전문인력 부족 단순 전시 포교역 미흡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한 박물관 관계자는 말했다.

이런 현실은 가장 필수적인 전문인력 확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현재 개관중인 성보박물관 중 미술사를 전공한 학예사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은 절반도 안 된다.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갖춘 곳은 통도사와 송광사, 직지사 등 3곳뿐이다.

전문인력 못지않게 박물관 일을 전담할 스님 또한 중요하다. 주지 스님이나



3월 3일 태고종 사찰로는 처음 문을 연 전남 순천 선암사 성보박물관(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재무 스님이 겸임하는 형식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스님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홍선 스님은 "성보박물관이 박물관다운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님들 가운데 역량 있는 분이 배움과 실무에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보박물관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보박물관에 대한 교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성보박물관을 단순히 도난을 방지하거나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가 아니라 불교 문화재를 보존하고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문화재전문가들은 밝혔다. 박성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은 "성보박물관은 일반 박물관과는 달리 포교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도 "성보박물관을 짓고 있는 사찰이 많지만 박물관을 단순히 전시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당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에서 시청각 포교당으로 가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a.com

高僧 다시보기

연재 시작하며

요즘을 세간에는 공예의 관심법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교의 관심법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가 결여된, 유행어 따라하기 수준의 관심사인 하지만, 불교계의 한 인물을 나름대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다른 드라마라는 점에서 불자인 필자로서는 반갑기도 하다.

이렇듯 역사 인물은 현존 인물도 마찬가지지만 관점에 따라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 공예의 예가 바로 그렇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승려로 볼 수도 있고, 왕권을 방편으로 민중을 위해 불심을 퍼뜨린 인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그 관점을 제공하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랄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불교는 민중들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었고 보다 높은 차원세계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계발·창조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애쓰고 고승들은 수없이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고승들 가운데 권승·술승·요승·신승 등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적지 않다. 조선의 성리학이나 근대의 서구

민중의 삶에 깃든 고승행장

한국 문화 정체성 찾기 '한류'

문화 경도에 따른 편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법의 정수를 널리 알리지 못한 탓도 크다.

이 땅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이가 순도화상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그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원효 스님을 성인으로 받들면서도 스님이 제를 깨뜨리면서까지 민중들 속에 뛰어든 위대한 뜻을 잘 모른다. 신라시대 조선초까지 민중의 정신적인 표상으로서 민중을 이끌었던 왕사·국사가 많았음에도 그들의 존재는 역사책에서나 있을 뿐이다.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도와 한양을 서울을 정한 것을 알아도 그것이 중생을 위하여 佛法을 일으키려 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 서산대사에 대해서도 조선왕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국의 선봉에 선 승병장이었음을 알아도 불교를 중흥시켰던 고승인지는 모른다.

이처럼 크나큰 가르침이나 위업을 남긴 고승들이 세간사와 얽혀 간혹 오해를 사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본디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30여회에 걸쳐 우리의 역사에서 잘못 알려졌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고승들에 대하여 역사적인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승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쓴이 황인규 씨는 동국대 대학원사학과에서 '무학대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동국대 강사 및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다. <마지막 왕사 무학대사> <무학대사 연구> 등을 펴냈고 중세불교사상사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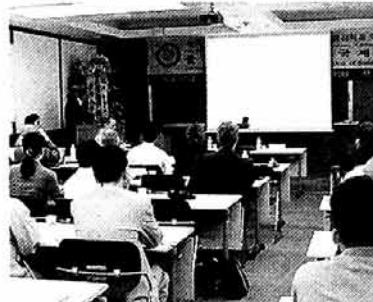
"세계 불교 전자도서관 만들자"

6개국 50여 전문가 참석 국제 학술회의서 논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 주최로 5월 25~26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열린 세계전자불전학회(EBTI)의 국제학술회가 '세계 불교 전자도서관 구축'을 주요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불교 경전 전산화에 있어서 국제협력"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세계 6개국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불교 경전 전산화 작업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지금까지 국가별, 개인별로 진행돼 온 전산화 작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 작업의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 스님은 "이미 입력 작업과 가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학술대회는 이의 활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며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어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세계 불교 전자도서관 구축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어로 번역된 대장경본 아니라 불교 전자사서, 각종 불교자료 등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사이버 도서관 개관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국제 전자불전학회 국제학술회가 5월 25~26일 동국대서 열렸다.

의 첫걸음을 떼어놓은 셈이다. 하지만 여러 언어로 된 대장경을 인터넷에서 통합해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호환해 활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 기술의 개발, 공통적인 전산화 개발 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다.

한편 학술대회 후 열린 정기총회에서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인 보광 스님이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은 찰스 빌러 교수(일본 동양학원대학)가 맡았다. 학회의 영문 명칭은 당분간 그대로 사용한다. 한자권에서의 명칭은 국제전자불전학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9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권형진 기자

"범어 한글표기 원래 발음대로"

이지수 교수 주장

아직 표준화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범어의 한글표기와 관련, 범어의 원래 발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이지수(사진) 교수는 2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인도철학회 춘계 학술발표회에서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 대신 범어의 원래 발음을 한글표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할 경우 표현할 수 있는 범어 발음이 50%미만인 데 비해 범어의 음운체계를 발음법을 따른다면 80~90%까지 한글 표기가 가능하다고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자는 주장은 범어의 발음법을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범어 발음에는 있지만 우리말에는 없는 권승음, 장음 등을 표기하기 위해 방점(·) 장음부호(ˉ)를 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교수의 안은 '까' '짜' '따' 등 된소리가 많이 쓰이고,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글자 위나 아래에 방점(·)을 찍는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활용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사주팔자

누기 운명(運命)을 논(論)이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특히 21세기 가장 실기 책을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운명에 대하여 대처(對處)한다면 용화(容和)의 역(厄)을 면(免)하고 전희(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비밀을 벗긴다』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일문 총통)) (해몽, 그 중심의 비밀) (꿈풀이 생활))
- 부록 (꿈은 부부꿈)

관음역서 시리즈

1. 해서 명리진경 신국판/해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만세력 4x6판/해서 조영수 편저/정가 15,000원(대) 신국판/해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소)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대)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정복 김백만 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신임최호철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정복/송철순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실습부 신국판/양정복/배기 지/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정우호 지/정가 12,000원
10. 관상수상학 강의 신국판/정우호 지/정가 15,000원
11. 신묘정비결 신국판/백정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일상록 신국판/양정복 이상욱 지음/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철학개관 신국판/양정복 편상백 지/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김용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정복 김성진 지/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공해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우호 지/정가 17,000원

권 동신 전통 목공

주요 공시시설

직지사 · 봉암사
각화사 · 대승사
해인사 · 축서사
윤필암 · 김용사
법주사 · 운문사
봉녕사 · 용문사
서광사(캐나다)
한마음선원대구지원

찾아오시는길

↑ 추풍령IC
동신전통목공
← 직지사
김천시내 ↓
직지사역
김천소

사찰문 전문

대표 백영목 합장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동 523번지 (직지사 검문소 위)

전화 : (054) 432-1312
공장 : (054) 432-8121
휴대폰 : 011-535-7000